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전영화 편집인 : 이계홍 100-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T. 02)733-0303, 02)733-3991~3 인쇄 : (주)한우리SJM

2017년 (단기 4346년) 11월 3일 (금)

http://dongguk.info

제242호

동국장학회 돌아오다 ... “정상화의 새 전기”

3년7개월만에 직인·운영기본재산 통장 반환 받아

총동창회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인 장학사업이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 총동창회 업무를 방해해왔던 소수 동문들에 의해 2014년 3월8일 무단으로 외부 반출되었던 동국장학회 직인과 운영기본재산이 입금된 통장(10억원)과 운영자금 통장이 10월31일 총동창회로 반환됐다. 3년7개월만이다.

이에따라 총동창회(회장 전영화)는 하루라도 빨리 재학생들에게 매학기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장학회 신입 임원구성과 기금조성 등 동국장학회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다.

총동창회는 동국장학회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 감독기관인 서울교육청 방문과 소송, 심지어는 “동국장학회 정상화하라”며 전임 이연택 이사장 자택 인근에서 수차례 피켓 시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지급되어야할 장학금 재원(이자 등)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소수 동문들에 의해 묶여 있어 동문사회나 학교당국에서의 비난도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요지부동했던 장학회는 대법원이 “이연택은 동국장학회 이사장이 아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소송의 실무를 맡았던 정환민 총동창



▲ 전영화 총동창회장이 2016년 5월 정기총회에서 재학생들에게 총동창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회 사무총장은 “경위야 어떻든 지난 갈등과 대립은 더큰 화합과 단결을 요구하는 진통의 과정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12월14일 갖는 2017 동국인의 밤에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잔치를 대대적으로 열겠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그동안 총동창회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총 23건의 재판을 받아야만 했다”면서 “분란과 분파 행동으로는 정상적 총동창회의 장애가

될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변호사 선임없이 사필귀정이라는 진실만을 믿으며 혼자 싸웠던 재판도 있었다”고 밝혔다.

총동창회가 내홍을 벗어나게 됐다는 소식에 동문사회는 환영분위기이다.

모교 이관재 부총장은 “총동창회의 법적 시비가 일단락 되면서 학교법인, 학교당국, 총동창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동국발전을 위한 협력관계에 활력을 되찾게 됐다”면서 반겼다.

여자총동창회 사무국장 안영숙(82/86 연영)동문은 “그동안 동창회 소송을 보고 답답했다”면서 “과정이야 어떻든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더 이상의 분란이 없도록 노력하여 동문사회가 더욱 결속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부산동창회장 박진호(64/70경영)동문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4년 가까이 시일을 끌어오고, 문자폭탄이 쏟아지면서 어느것이 진실인지 헷갈린 것이 사실이었다”면서 “이제야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후련하다. 그러나 이제부터 과거를 딛고 하나로 뭉쳐서 명문 총동창회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분란을 주도하고 소모적인 법정다툼을 하긴 했지만 소수 동문에게도 관용을 베풀어 모두 함께 하는 총동창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본회 감사를 맡고 있는 김진수(78/85 행정)동문은 “집행부의 그동안 노고를 치하하지만 재판의 승소가 전부는 아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총의를 모으는 지혜도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도 단합하고 결속하는 일에 매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새 교훈 ‘지혜’ ‘자비’ ‘정진’ 제정 선포

지난 5월1일 개교111주년 기념식에서 새 교훈이 제정 및 선포됐다. 새로 정립된 교훈은 ‘지혜·자비·정진’으로 기존 교훈의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구성원들에게 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1934년에 제정된 기존 교훈은 젊은세대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 그동안 새 교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부처님 가르침의 진수 표방

새로운 교훈은 ‘지혜’를 얻고 ‘자비’를 베풀며 끊임없이 ‘정진’하는 동국인

을 키우기 위해 재정립했다. 부처님 가르침의 진수로서 「상구보리(上求菩提)」 즉, 자신을 위한 삶으로서 ‘지혜’, 「하화중생(下化衆生)」 즉, 타인을 위한 삶으로서 ‘자비’, ‘지혜’와 ‘자비’를 이루기 위한 실천적·태도적 의미인 ‘정진’을 담았다.

새 교훈은 기존 교훈의 가치를 계승한다. ‘지혜’는 섭심과 신실에서 자기개발과 진리추구를, ‘자비’는 자애와 도세에서 베풀과 중생구제의 의미를, ‘정진’은 ‘지혜’와 ‘자비’를 위한 실천적 노력이자 게으름 피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함을 의미한다.

또한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지혜·자비를 충만케 한다는 모교 건학이념의 핵심 가치와도 부합한다.

■ 개교이후 3차례 교훈 제정

모교 교훈은 그동안 시대에 따라 두 번 변했다. 1906년 최초의 교훈 ‘자비수선(慈悲修善)’은 신학문을 교육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지덕을 높여 올바른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1934년 재정립한 교훈인 섭심(攝心, 마음을 깨끗이 가다듬는다), 신실

(信實, 참되고 미더운 행실을 한다), 자애(慈愛, 대중을 자비로 사랑한다), 도세(度世,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진다)는 지금까지 모교의 교육정신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모교는 누구나 알기 쉽고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건학이념에 충실한 새 교훈을 만들기 위해 2016년 교훈재정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2016년 9월 학생, 교수, 직원, 동문을 대상으로 한 교훈 공모를 시작으로 약 8개월 간 깊은 고민과 논의·연구과정을 거쳐, 개교111주년을 맞아 새로운 교훈을 선포했다.

2017 동국인의 밤 ... 12월 14일 오후 6시30분 앰배서더 호텔에서 만남시다.

조선일보 대학평가 국내 13위

아시아평가 82위로 전년 보다 6계단 상승



모교는 조선일보가 10월17일 발표한 '2017 QS(Quacquarelli Symonds) 아시아대학평가'에서 국내순위 역대 최고

(국내 13위)를 달성했다.

2016년 아시아 순위 88위를 기록했던 모교는 올해 6계단 오르면서 82위를 기록했다.

또 국내 순위는 1계단 올라 13위를 기록했다. QS아시아대학평가는 ▲연구 능력 50%(학계평가 30%, 교원당 논문 수 10%, 논문당 피인용 수 10%) ▲교육 여건 20%(교원당 학생 수 15%, 박사학위 소지 교원 비율 5%) ▲졸업생 평판도 20% ▲국제화 영역 10%(외국인 교원 비율 2.5%, 외국인 학생 비율 2.5%, 해외로 나간 교환학생 2.5%, 국내로 들어온 교환학생 2.5%) 등 4개 영역의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각 대학의 순위를 매긴다.

올해는 아시아 426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 17위

학생성과 · 평판도 등 대부분 지표 올라

모교는 중앙일보 10월24일 발표한 '2017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종합순위 17위를 기록했다.

각 지표별로는 학생성과 6계단(4위), 교육여건 2계단(21위), 평판도 1계단(21위), 교수연구 전년과 동일(27위) 등 대부분의 지표가 상승했다.

특히 학생성과 지표가 역대 최고 순위(4위)를 기록한 가운데 계열별로 살펴보면 ▲자연계열 1위 ▲인문계열 5위 ▲공학계열 6위 ▲사회계열 8위를 기록하는 등 전 계열에서 국내 TOP 10을 석권했다. 세부지표 중 ▲창업교육 비율 12계단

▲유지취업률 5계단 ▲중도포기율 2계단 ▲졸업생 창업 활동 1계단 등 전체적으로 순위가 올랐다.

전년대비 2계단 상승한 교육여건 지표의 세부지표 순위는 ▲세입 중 기부금 비중 5위 ▲외국인 교원 비율 5위 ▲외국인 학생 비율 5위 ▲교환 학생 비율 6위 등이다.

2년 연속 순위가 오른 평판도 지표의 세부지표 순위는 ▲신입사원을 뽑고 싶은 대학 20위 ▲입학을 추천하고 싶은 대학 18위 등이었다.

QS세계대학평가 '400위권'

모교가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의 '2017 QS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 순위 471위를 기록했다. 국내 순위는 지난해보다 1단계 오른 13위이다.

조선일보 6월8일자 기사에 따르면 올해 QS 세계대학평가는 전 세계 4854개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교육·졸업생·국제화 등 4개 분야를 6개 지표로 평가해 순위를 매겼다. 6개 평가 지표는 ▲학계평가(40%)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수(20%) ▲교수 1인당 학생 수(20%) ▲졸업생 평판도(10%) ▲외국인 학생비율(5%) ▲외국인 교수비율(5%) 등이다.

지표별로는 졸업생 평판도와 외국인 학생 비율이 각각 6위, 18위 상승했다.

QS는 세계적으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으로, 2009년부

터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세계 대학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공계 정량평가 역대 최고 7위

모교가 6월12일 발표된 한국경제신문의 '2017 이공계 대학 평가'에서 종합 순위 11위를 기록했다. 특히 정량평가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제치고 7위에 올랐다. 모교가 그동안 인문계 뿐만 아니라 이공계 분야도 중점 육성한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경 이공계 대학 평가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한국경제가 200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스트롱코리아' 사업의 일환이다.

통계학과 '최상' ... 중앙일보 학과 평가



■ 화학·전자전기·건축 '중상'

중앙일보가 10월7일 발표한 '2017 대학평가-이공계'에서 통계학과가 최상등급을 받았다. 통계학과는 총 34개 학과 중 TOP3 안에 들었다.

화학, 전자전기공학부, 건축공학부는 학과 평가에서 '중상'을 기록했다. 화학과는 51개 학과 대상 ▲졸업생 유지 취업률 1위 ▲현장실습 비율 4위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전자전기공학부는 61개

학과 중 ▲졸업생 순수 취업률 5위 ▲전임교원 1인당 국제논문 9위를 기록했다.

건축공학부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에서 45개 학과 중 10위를 기록했다. 모교가 인문계 뿐만 아니라 이공계를 강화하고자 했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 사학과·경제학과 '중상'

10월8일 발표한 '인문·사회계'에서 사학과와 경제학과가 중상등급을 획득했다. 사학과는 '전임교원 1인당 국내 논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49개 학과 중 2위를 기록했다. 경제학과는 '전임교원 1인당 외부연구비'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교수연구역량과 여건에서 좋은 점수를 기록했다.

2017 중앙일보 대학평가 학과 평가는 이공계와 인문·사회계열 전국 70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각 계열별로 5개 학과를 평가했다.



三元이트貿易株式會社

[전문점] 삼성전자(주) : 프린터용 정품 잉크 / 토너 카트리지

□ 본사
□ 용산지점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8층 (방배동, 명림빌딩)
서울 용산구 원효로58길 15-15 (원효로2가)
TEL : 02-521-8857 / FAX : 02-719-2436
TEL : 02-701-8472 / FAX : 02-701-8462

代表理事 具允寬

대법원, 현 동창회 정통성 인정

총동창회 및 동국장학회 소송 모두 승소

현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전영화)에 대해 대법원도 그 정통성을 인정했다. 사필귀정이었다. 현 전영화 회장 체제는 그동안 소수 동문들의 무책임한 시비와 여론 호도에도 불구하고 총동창회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사실상 소송은 의미가 없던 일이었다.

대법원은 7월11일 1, 2심과 마찬가지로 이연택 측이 제소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이유 없다"는 취지로 기각한 데 이어, 2017년 7월27일 이연택 동국장학회 이사장이 선임한 이사진 모두에 대해서도 "선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연택 측이 제기한 재판은 모두 현 동창회의 승소로 결론이 났다.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이연택 측이 2015년 5월28일 열린 총회가 무효라며 같은 해 6월5일 서울지법에 제소했으나 9월17일 "이유 없다"는 취지로 기각됐다. 9월22일 서울고법에 항소, 2017년 4월21일 기각한것을 다시 상고 했었다.

또한 이연택 씨가 대법원에 상고한 재판법인 동국장학회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재판에서는 "이연택을 동국대 동창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이므로, 이연택은 동국장학회의 이사장이 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연택 씨는 2014년 10월10일 동국장학회 재적이사 15명 가운데 3명만 참석했음에도 10명의 임원을 선출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14년 3월8일 밤 박용재(66법학) 등이 동창회

사무실에서 외부로 빼돌렸던 업무용 컴퓨터 3대, 업무서류, 총동창회 직인 및 예금통장 인감 등이 9월21일 본회로 반납됐다. 또한 총동창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동문사회를 분란시켰던 소수 동문들의 자해성 문자메시지 수신도 사라졌다.

여자동창회 '토크 콘서트' 2학기 장학금 수여식도 가져

여자총동창회(회장 김애주, 76영문, 모교 영문과 교수)는 9월20일(수) 오후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나의 꿈, 나의 도전'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여자 동문들의 성공스토리를 재학생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동문 및 재학생 60여명이 참석했다.

연사로는 김혜미(84연극영화, 서대문구 구의원), 배미경(85식품공학,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이사), 강진희(81가정교육, 에너지관리공단 홍보실장) 동문이 나와 취업 경험담, 직장인으로서의 자세, 가치관, 경쟁력 등을 밝히며 후배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여자총동창회는 이날 행사에 앞서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2학기 장학금으로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을 전달, 격려했다.

이날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축사와 함께 여자동창회 발전을 기원하는 후원금 100만원을 김애주 회장에게 전달, 격려했다.

남산 걸으며 학창시절 추억속으로

92세 대선배 등 노장청 150명 참가



올해 92세인 혜화전문 46학번 이남진(영문) 동문이 수십년 후배들과 함께 당당하게 남산꼭대기를 오르내렸다. 이 동문은 75세때 동아일보 마라톤대회에서 노인부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본회 주최, 제6회 남산걷기대회가 10월28일(토) 오후 모교 불상앞을 출발해 남산 팔각정에 오른뒤 다시 모교로 되돌아오는 왕복 3km 코스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전영화 회장을 비롯 40년대 학번부터 2000년대 학번까지 각 연령층을 망라한 150여명의 동국가족들이 참가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남산을 오르내리며 화기애애하게 선후배간 우의를 다졌다.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출발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남산은 모교와 인접해 있어 학창시절 추억이 남다른 곳이다. 오랜만에 동국가족이 하나되어 우리만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더불어 용맹정진 기상을 드높이자"고 말했다.

모교 대외협력처장 종호스님은 "오늘

행사를 통해 모교에 대한 애정도 키우고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뜻깊은 날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걷기를 마친 참가자들은 상록원 교직원식당에 다시 모여 만찬과 여흥으로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ROTC 한마음체육대회

112ROTC동문회(회장=김병대, 77/81행정)의 한마음체육대회가 10월28일 오전 10시부터 회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모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체육대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축구와 짝수 기수로 나누어 탁구, 배구, 농구, 족구 경기를 가졌으며 종합우승은 홀수 기수가 차지했다.

체육대회는 행운권 추첨등과 시상식으로 마무리 한뒤, 이어 참가자들은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제6회 남산걷기대회에 합류해 모교에서의 추억쌓기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2017 동국인의 밤' 개최 공고

30만 동문의 만남과 화합의 축제인 '2017 동국인의 밤' 행사에 초대합니다. 1972년부터 시작된 동국인의 밤 행사는 4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며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시상, 축하공연, 시상송회, 명사특강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품격을 높이며 아름다운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알찬 내용으로 동문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 시 : 2017년 12월14일(목) 오후 6시30분]
- 장 소 : 호텔 그랜드앰배서더(서울 장충동 소재)
- 참가비 : 5만원
- 연락처 : 총동창회 사무처(02-733-0302, 733-0303)
- 사전에 참가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입금후 전화 요망)
입금계좌 : 하나은행 150-22-01536-0 동국대총동창회
- 각 단위동창회별로 단체 참가할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테이블을 예약해 드립니다.

2017년 11월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후보자 추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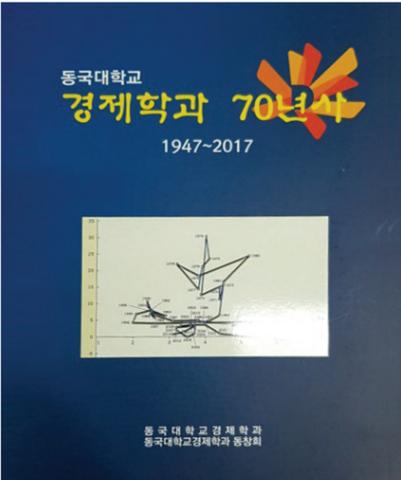
2017 동국인의 밤 행사에서 시상할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후보를 추천 받습니다. 이 상은 사회 각계에서 동국의 명예와 긍지를 빛낸 동문에게 주어지는 동국인으로서의 최고의 영예입니다. 동국가족 모두의 사표가 되는 동문을 시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있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격 기준 :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동문
사회 각 분야에서 업적이 뛰어난 동문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동문
- 추천 방법 : 본회 회장 및 상임위원 추천
각 지부(회) 회장 추천
본회 회원 10인 이상 공동 추천
- 제출서류 : 추천서, 후보자 이력서 및 명함판 사진, 공적서
- 추천마감 : 2017년 11월30일(목)까지
- 수상자 선정 : 본회 회칙 제 25조 상벌 규정에 의거, 상벌위원회에서 심의
- 시 상 : 소정의 상패와 부상 수여
- 접수 및 문의 : 총동창회 사무처 (02-733-0302, 733-0303)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경제학과 70주년기념 행사 성황

졸업생 7천명, 재계_학계_공직 등 다방면 진출



‘경제학과 70주년기념 및 경제인의밤’ 행사가 경제학과와 경제학과동창회 공동 주관으로 10월20일(금) 오후 그랜드 엠배서더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경제학과는 1947년 설립된 이래 7천여명의 동문을 배출하며 재계, 학계, 정

계, 공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학과 교수진, 동문, 재학생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84학번 오수환(경제학과동창회 사무국장)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송일호 경제학과동창회장의 개회사 ▲한보광 모교 총장스님 치사 ▲전영화 총동창회장 축사 ▲곽채기 사회과학대학장 격려사 ▲경제학과장 안형택 교수의 경제학과 발전방안 발표 ▲신관호 경제학과 1-2-3대 사무국장의 동창회 현황 소개 ▲발전기금 전달식 및 기부자 소개 ▲100년을 위한 동참의 시간(기부약정의 시간)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제학과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으로 경제학과 교수일동이 4천만원을 출연한 것을 비롯해 동문들과 각 학년별 동참이 이어져 총 1억 1,576만원을 모금했다.

산업시스템공학과 50주년 자축연



산업시스템공학과 창립50주년기념행사가 동문 및 재학생 10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10월27일 오후 모교 상록원 교직원식당에서 열렸다.

산업시스템공학과는 1967년 공업관리학과로 설립인가를 받아 1968년 첫 입학생을 받았으며 이후 공업경영학과, 산업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부로 학과명을 변경하며 2천명의 졸업생을 배출해냈다.

학생회장 인사,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장학금 전달식, 축하 노래 및 댄스 공연 순으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후배장학기금으로 김도영(74학번, D스테크 대표)동문 2천만원, 구대환(87학번, 전 대흥에코 사장)동문 3천만원 등 총 6천만원을 모금해 모교에 전달했다. 재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건축공학부 50주년 비전 선포식

‘도전과 열정으로 50년, 미래로 도약하는 100년’

건축공학부 50주년기념 행사가 동문, 교수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11월24일 오후6시 엠배서더호텔에서 개최된다.

‘도전과 열정으로 50년, 미래로 도약하는 100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번 행사에서는 학부설립 50주년 비전선포식, 동문밴드 공연, 감사패 증정, 장학금 수여식 등이 있게 된다.

건축공학부50주년기념사업회는 1억원 목표로 학부발전기금을 조성 중이며, 이날 행사장에서는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1천만원도 전달할 예정이다.

건축공학부는 1967년 산업대학 건축

공학과(정원 30명)로 출발해 이후 1969년 건축공학과, 1994년 건축토목공학부, 1999년 건축공학부로 개편되었으며 졸업생은 2,700여명에 이른다.

특히 건축공학부는 2000년 건축공학전공 공학인증 프로그램 인증을 받았다.

2011년에는 건축설계전공 과정을 건축석사 학위(Master of Architecture)과정으로 신설하여 2017년 건축학 4+2 교육프로그램 국내 최초 인증 승인을 받는 등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다.

정외과 70주년 ... 명문학과 재천명

신임 동창회장에 고용규 동문 선출

정치외교학과 70주년기념식 및 ‘정의인의 밤’ 행사가 동문회와 학과, 학생회 공동 주관으로 11월10일 오후6시30분 서울 중구 PJ호텔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70년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발전기금 조성, 학과 비전 발표, 연혁 소개, 동창회 현황 설명 등을 통해 명문학과로서의 위상을 재천명하게 된다.

재학생들은 11월10일부터 17일까지

를 ‘정의인의 주간’으로 정하고 모의국회와 논문 발표회 등을 갖는다.

한편 정치외교학과동창회는 이번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 11월3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희영) 명의로 임시총회를 열어 신임 회장에 고용규(70학번), 감사에 강성노(71학번) 김종식(76학번) 동문을 선출하는 등 새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행정대학원 발전기금 2억원 모금

개원 50주년 맞아 ‘새로운 도전’ 선언



전달했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영상으로 본 행정대학원 50년’ 상영, 곽채기 원장 기념사, 축사 등과 이황우 전 행정대학원장의 회고사, 감사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2부는 만찬과 축하공연, 발전기금 현장 약정 및 기부자 소개가 있었다.

행정대학원은 1967년 설립된 사립대학 최초의 행정대학원으로 현재는 서울과 고양캠퍼스에서 5개 학과의 석사과정과 8개 특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배출된 졸업생 수는 7천여명으로 정치인 공무원 교육자 군인 기업인 종교인을 비롯 각계각층에서 지도자로 활약하고 있다.

행정대학원은 개원 50주년을 맞아 ‘개원 50년의 성과와 100년을 향한 도전’을 주제로 한 기념 행사를 졸업생 및 재학생과 내외귀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25일 오후 엠배서더호텔에서 가졌다. 행사에는 한보광 총장스님과 전영화 총동창회장, 홍영표 국회의원노동위원장, 오연천 전 서울대총장, 역대 행정대학원장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행정대학원은 이날 모금된 2억원을 모교 발전기금으로 한보광 총장스님에게

전자전기공학부 IT분야 리더 다짐

설립 50주년 맞아 50명에게 장학금

전자전기공학부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11월10일 오후 5시30분 모교 상록원 교직원식당에서 자축연을 갖는다.

이날 행사는 정철희(78학번, 노이즈프리미어랩 대표이사) 동창회장과 엄기환 원로교수의 인사, 김삼동 학부장 환영사, 연혁소개, 퇴임교수에 대한 공로패 전달, 기부금 결산보고, 고액기부자 슬라이드 소개, 장학금 전달, 전자전시회 및 Matlab 경연 시상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장학금은 50주년을 맞아 50명에게 동창회 장학금을 수여하게 된다.

전자전기공학부는 IT 기술의 융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자공학과와 전기공학과를 2010년 통합했다. 기존의 전자공학과는 1966년 2월 산업대학 자동제어학과로 출발, 1968년 전자공학과로 개칭했다. 전기공학과는 1967년 12월 수자원공학과로 출

발하여 1969년 12월 전기공학과로 개명했다.

67학번 입학50주년 행사

입학 50주년- 일흔살 안팎의 노 선배들이 모교를 다시 찾는다. 입학5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가 11월6일 오후 3시부터 중강당 및 상록원 교직원식당에서 열린다. 입학30주년 행사는 지난 2009년 79학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이어져오고 있지만 50주년 행사는 개교이래 처음이다.

성영석 행사준비위원장(경영, 한국포리머 회장)은 “이미 몇몇 대학들은 입학 20,30,40,50주년에서 60주년 홈커밍데이까지 열고 있다”면서 “모교 발전의 지킴이이자 후원자로서 동문들의 참여는 세대 구분을 떠나 모두에게 화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함께 살아갈 우리들의 꿈 ... 새로운 30년 기약하다”

87학번 입학30주년 홈커밍데이, 학창시절 그리며 우정 다진 흥겨운 하루



▲ 한보광 총장에게 김태호 위원장(왼쪽)이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 추억의 학사복을 입고 명진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 백상응원단의 환영 공연

맑고 푸른 가을하늘아래 오색단풍이 아름답게 펼쳐진 10월의 동악캠퍼스-스무살 학창시절 부푼 꿈을 안고 청춘을 불살랐던 87학번, 50언저리 동문들이 다시 모교를 찾았다.

87학번 입학3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가 150여명의 동기생들이 함께 한 가운데 10월21일 오후 모교 교정일원에서 뜻깊게 열렸다.

행사는 1부 식전행사로 팔정도 주변에 1987년 국내 및 학교 10대 뉴스 사진 전시, 사진촬영을 위한 포토월과 학위복이 제공되어 30년전 그 시절의 옛 추억을 더

듬게 했다. 중강당에서 열린 2부 환영행사에서 홈커밍데이 준비위원회 김태호(경제, 한신회계법인 회계사) 대표위원장은 “오늘의 모임은 새로운 30년을 기약하는 출발의 의미한다”며 “함께 살아갈 우리의 꿈들, 마음속에 품은 이야기들을 담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연락하고 만나고 새로운 정을 키우자”고 인사했다.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87학번 여러분께서도 이제부터는 동국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모교의 명예와 동창회 위상을 드높이는데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보광 총장스님은 치사에서 “동국가족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전통 명문사학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87학번들도 모교변화와 발전에 앞장서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영행사는 학교홍보영상 관람, 추억의 영상 관람, 환영공연등으로 이어졌다. 감사패는 한보광 총장스님이 지난해 86학번 홈커밍데이 준비위원장인 김신복(물리,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 전무) 동문에게 전달했다. 김태호 준비위원장은 87학번장학금을

17학번 경영학과 천강현군과 불교학부 김서현양에게 수여했다. 환영공연은 백상응원단이 진달래 등 재학시절 즐겨 불렀던 곡을 중심으로 흥을 돋구었으며, 87학번 OB응원단 3명도 무대에 올라와 후배들과 한데 어울렸다. 이어 참가자들은 졸업 까운을 입고 명진관(석조관) 앞에서 대학 및 동창회 임원들과 기념촬영을 한뒤 상륙원으로 장소를 옮겨 만찬을 즐기며 레크레이션과 경품 추첨, 기념품 증정 순서로 흥겨운 하루를 보냈다.

합창단 ‘동국양상블’ 창단 11월 첫 연습, 단원 수시 모집

모교 개교 111주년을 기념하는 동국대학교 동문합창단(가칭 동국양상블)의 연내 창단 발표회를 위한 작업들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동국양상블의 출범은 1년전부터 총동창회 소통위원장 김종필(82행정, 내일신문 정치부장)동문을 중심으로 한 애호가들에 의해 준비되어 왔었다.

동국양상블은 초대 단장으로 국민배우 강석우(78연영)동문을 영입했다. 연습실은 모교 문화관 2층 음악원을 이용하게 된다.

첫 연습은 11월 첫째주 화요일(7일) 오후 7시30분부터 시작되며, 단원은 성부(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별로 간단한 오디션을 통해 수시 선발한다. 동국양상블은 매년 정기연주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락처 02-733-0302

불교과, 운문사 야외법회 명성스님에게 ‘명예로운 동문패’

불교학과동문회(회장=김용표, 69학번, 동국대 명예교수) 춘계야외법회가 회원 3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5월27일 경북 청도 운문사에서 봉행됐다.

기원학사법우회(회장=이재형, 64학번)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운문사 회성당에서 박영동(76학번, 동국대부속여중 교법사) 동문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김용표 회장이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64학번,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원로회 의장)에게 ‘명예로운 동문패’를 전달했다. 이어 명

성스님 법문, 주지 진광스님(84선학)의 명성스님 행장 소개, 선진규(55학번, 봉화산 정도원장)고문의 격려사, 하춘생(83학번)동문의 ‘운문사와 한국의 비구니 승가’ 특강, 운문사와 명성스님 비디옷상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구지부 회장 이·취임

대구경북지부동창회 신·구 회장 이·취임식이 6월27일 시내 M음식점에서 열렸다. 신임 손기범(91행원, 동부허병원 상임고문) 17대 회장은 지난 1월부터 회장직을 수행해 왔으며 이날 취임식을 가졌다. 전임 손창수(81한외, 손한의원장) 16대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8년간 동창회를 이끌어 왔다.

손 신임 회장은 수석부회장에 손진걸(84국사, 안동서점), 상임부회장 겸 사무국장 이종호(84무역, 송백영농조합 대표), 총무 임승학(96국제관계, 덕영치과팀장), 재무 박재준(99안전공학, 포스트코) 동문을 각각 임명했다.

광주지부 하회마을 탐방

광주전남지부동창회(회장=박태현, 68경영, 시온문화사 대표) 동문가족 하계야유회가 6월6일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인 안동 하회마을 등지에서 열렸다.

회원 및 가족 20여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오전 8시 광주를 출발, 안동에 도착해 하회마을의 서원 고택 정자 등을 답사한 데 이어 부용대 안동땀 뿜교를 잇는 마을 외곽을 둘러보았다.

“84학번 만세” ... 행복한 만남 계속

■ 가을 운동회

입학3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후 가족처럼 가까워진 84학번동기회(회장=이중주) 가을운동회가 8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9월16일 모교 체육관 등 교정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운동회는 동기회에서 자체준비한 유니폼을 입고 용맹팀과 정진팀으로 나누어 농구, 족구, 줄넘기, 게임 등을 펼쳤다.

■ 동산회 울릉도 탐방

84학번동기회 등산모임인 동산회(회장=신화섭)의 울릉도·독도 탐방행사가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열렸다. 이 행사에는 22명이 참가해 성인봉 등산과 저동 봉래폭포 전망대 등 투어, 둘레길 산책 등을 가졌으며 독도는 기상 때문에 입도하지 못했다. 동산회는 매달 정기 산행과 매주 번개 산행 등으로 심신단련은 물론 회원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다.

■ 히말라야 칼라파타르 5,550m 트레킹

84학번 동기생 14명이 히말라야 칼라파타르 트레킹에 나서 13일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10월29일 귀국했다. 이들은 이 지역 트레킹을 7번이나 다녀온 박재범(사학)동문을 대장으로 탐을 꾸려 10월14일 카투만도로 출국했다. 84학번 팀은 해발 5,550m의 칼라파타르 정상에 올라 에베레스트산과 로체산, 늑체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며 “동국만세”를 외쳤다.

특히 트레킹 중에는 지난 1993년 5월 이곳에서 희생된 84학번 동기 남원우(경찰행정학과)동문의 묘비를 만나 작은 추모식을 갖기도했다.



‘동국 발전’ 한 목소리 합창

본회 초청 ‘모교 명예교수 위로연’ 화기애애



총동창회와 모교 명예교수들이 모처럼 자리를 함께 했다. 총동창회 초청으로 진행된 명예교수들과의 간담회가 7월21일 정오 학교법인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스님과 권기종 명예교수회장을 비롯한 회원, 동창회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앞 중식당 ‘만복림’에서 열렸다.

이날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동창회가 설립된 이래 명예교수님들을 모신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면서 “평생을 모교 발전과 후학지도에 애쓰셨던 교수님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아울러 지혜와 경륜을 학교발전에 보태주

십사하는 염원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날 송석구 전 총장은 건배사를 통해 “하나도, 둘도 우리에게 동국발전이 화두이고, 최고의 가치이다”면서 ‘동국발전’ 구호를 선창, 모두 힘차게 반복 합창했다.

정환민 본회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은 각 테이블마다 본회 임직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동창회 소식을 전하는 한편, 명예교수들의 근황을 들으며 덕담을 나눴다.

이날 참석한 명예교수들에게는 본회 홍종표 상임부회장이 기증한 대형 태울이 선물로 주어졌다.

“만해 대선배님의 유훈 계승 앞장”

본회 주관 제3회 만해통일문학축전 성료



우리 총동창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만해 한용운스님을 기리는 ‘광복 72주년 및 만해탄신 138주년 기념 제3회 만해통일문학축전’이 3백여명의 학자, 문인, 동문, 불자, 지역 주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8월29일 서울 성북구 심우장에서 성대히 치러졌다.

만해스님의 독립정신 및 민족문학 기여도를 재조명, 오늘날 통일한국의 미래 사상으로 선양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기념식 △학술발표회 △통일염원 전국노인백일장 △한국불교문학상 및 계간 <한국불교문학> 작품상 시상식 순서로 진행됐다. 만해통일문학축전위원회(공동대

회장 선진규·문효치)가 주최하고 동국대총동창회를 비롯한 한국불교문인협회, 만해사상실천연합, 대한불교청년회가 공동주관했다.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만해 대선배님의 자주독립사상과 문학적 유훈을 계승, 오늘의 시대정신에 맞게 다시 꽃 피우고 승화시키는데 모두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이날 학술발표회는 김용표(69불교) 동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만해사상과 통일문학’을 주제로 열렸으며, 백일장은 ‘나무’ ‘소(우)’ ‘통일’이 제목으로 주어져 문재를 겨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사회공헌사업이 국가 경제를 움직인다

복지제도는 국가나 대륙마다 다르다. 어떤 곳은 소비적인 복지(이 용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선택임)를 취한다. 이를 테면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주는 형태이다. 반면에 생산적인 복지도 있다. 실직하면 재교육을 통해 재취업을 하도록 하는 복지이다. 어느 쪽이 바람직할까? 이 관점이 우리 사회에서 많은 선택을 할 때 결정을 좌우한다.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사회공헌사업비 지출도 같은 맥락에서 동의를 하거나 결정이 될 것이다.

일반 기업에서는 사회공헌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다. 여러 이해를 바탕으로 실행이 되고 있다. 매출의 규모에 따라 그 액수 차이가 있다. 어떤 곳은 학교에 화단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연탄 나누기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가만히 그 쓰임을 지켜보면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주는 식의 의무적인 지출 양상이다. 만약 여기에 사회공헌사업비가 우리 경제의 활성화 내지는 사회적 투자에도 쓰이도록 발상의 전환을 꾀하면 어떨까?

즉 기업의 사회공헌사업비 → 사회적 소비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공헌사업비 → 사회의 미래 필요에 대한 부분 → 사회적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내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

기도 하겠지만 그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느냐에 대한 답에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교양 정도(즉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동시에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되도록 자극하는 주체)에 따라 엇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사회의 미래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우리만의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외국에 근본적인 정보를 의지하기만 한다. 우리가 자랑하는 초고층 빌딩도 터파기부터 설계까지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가 희망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두터운 교양인층을 만들어내야 한다. 외국의 어떤 만화회사는 만화 하나로 전 세계에서 무지막지한 돈을 긁어 들인다. 다양한 콘텐츠는 바로 신선한 산소와 같다.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흐르는 여울과도 같다.

우리 사회의 여울을 만들기 위해 사회공헌사업비가 일부 쓰일 수 있다면 어떨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50년, 100년 작심하고 투자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군대에 젊은이들이 약 60만 명이 있다. 이중에 약 40만 명이 의무 복무를 마치면 사회로 돌아온다. 젊은 병사들이 2년의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면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군대 생활 중 ‘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하다. 그런데 병영도서관이 제대로 설치된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장서가 아주 빈약하다. 설문에 의하면 약 80%의 병사는 군생활 중 ‘책’이 도움이 된다고 했고, 선호 분야는 1위 문학(46.8%), 2위 무엇이든 좋다(24.2%), 3위 경제경영(자기계발)(22.2%) 순이었다. 이 설문에서도 나타나지만 병영 내에 책이 필요함을 느낄 수가 있다. 이 갈증을 풀어주는 용도로 사회공헌사업비를 써보자는 것이다.

병사들이 다양한 책을 읽고 교양을 갖춘 상태로 제대 후 사회에 복귀를 한다면 이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제대로 된 사회일꾼을 맞이하는 기업이 덕을 볼 것이고, 앞서 말했지만 우리 사회의 콘텐츠 소비를 자극하면서 더욱 다양한 국가 콘텐츠가 생산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를 바탕으로 제조를 할 것이고 경제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결론은 생활소비적인 사회공헌사업비 쓰임에만 치중하지 말고 기존에 지출하던 사회공헌사업비 일부를 병영도서관에 책보내기 사업에 써보자는 것이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병영도서관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출판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우리 경제 비중으로 봤을 때 출판은 아주 불품이 없는 산업이지만 우리 경제 전체의 상황이 걸린 콘텐츠를 생산하는 전진기지이기에 출판 활성화의 가치는 매우 크다 하겠다.

출판이 살면 국가 경제가 활기차게 움직인다. 선진국에서 왜 책이 사회적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는가? 자본주의 선봉에서 달려가는 선진국이 왜 그럴까?

빌 게이츠에게 한 기자가 물었다. “당신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사줄 겁니까?” 빌 게이츠가 대답했다. “물론이죠. 그런데 책을 먼저 사줄 겁니다.”라고 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귀찮은 일이다. 또 환영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의지를 보일 때라고 생각한다.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회공헌사업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부만이라도 방향을 틀어서 사용하면 우리 사회의 전망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밝지 않을까 싶다.

이 원 중

(동대출신 출판인 모임 ‘목나사’ 회장, 지성사 대표, 수학과 83학번)

개교 111주년... 눈부신 '동국의 빛'

새 교훈 선포 · 동국학술상 시상 가져



5월8일로 개교 111주년을 맞은 모교가 5월1일 서울캠퍼스 본관 중강당에서 개교111주년 기념식을 갖고 새로운 100년을 위한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기념식에는 자광 학교법인이사장 스님, 한보광 총장스님, 전영화 총동창회장을 비롯 법인 임원, 교직원,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 교훈이 제정 및 선포됐다.

기념식에서는 공로상, 장기근속상, 동국학술상, 우수연구자상, 대학원 학술상,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학술연구에 기여한 공로가 큰 교원들에게 주는 '동국 학술상'은 논문부문

에서 물리·반도체과학부 김득영 교수와 지리교육과 권동희 교수, 산학협력부문에서는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송명호 교수가 수상했다. 우수 교원들의 연구업적을 격려하기 위한 '우수연구자상'에는 7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학원생 학술상은 총 7명이 수상했다. 이 밖에 13명에게 공로상을, 70명에게는 장기근속상(30년, 20년, 10년)을 수여하는 등 그동안 학교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에는 생명과학과 성정석 교수 등 2명이 선정됐다.

인문사회분야 연구과제 '7관왕'

대형 국책사업 총 63억2천만원

모교가 2017 인문사회분야 대형국책사업에서 총 63억2천만원을 지원받는 쾌거를 이뤘다.

모교는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총 15.5억) ▲토대연구지원사업(총 28.3억)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총 15.5억) ▲한국사회과학연구(SSK)지원사업(총 3.9억) 등 총 4가지 정부지원사업에서 7개 연구과제가 신규 선정됐다.

세부 사업별로는 2017년도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 일어일문학과 김환기 교수팀의 연구과제가 선정됐다. 연간 2

억6천만원씩 6년간 15억5천만원을 지원받는다.

불교학과 황순일 교수팀은 매년 2억6천만원씩 5년간 12억9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정승석 교수와 박광현 교수 사업단도 각각 매년 2억6천만원씩 3년간 7억7천만원을 지원받는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지원하는 2017년도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에서는 △법학과 조성혜 교수 △역사교육과 윤선태의 2개 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두 사업단을 합쳐 총15억5천만원을 받는다.

정치외교학전공 황태연 교수는 총 3억9천만원의 지원비를 받는다.

2016학년도 가을 학위수여식 서울 1,666명-경주 453명 졸업



서울캠퍼스 2017년 가을 학위수여식이 8월24일 오전 본관 중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 1022명, 석사 561명, 박사 83명 등 총 1666명이 학위를 취득, 총동창회의 새 가족이 되었다.

이날 본회 고문인 이창규(59/63경영, DK메디칼솔루션 회장)동문은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 국민의료서비스 향상과 모교에 기여한 점을 공로로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제59회 행정고시(2015년) 법무행정예 수석 합격 김성희(법학), 제51회 공

인회계사(2016년) 합격 김청일(회계학전공)동문 등은 총장 공로상을, 엄윤정(경제학)과 조한솔(영화영상)동문은 각각 법인이사장과 총동창회장의 공로상을 수상했다.

학부 성적우수상은 이혜민(영어통번역학), 홍태균(경찰행정학), 구상본(경영학), 김규완(수학교육)동문이 차지했다.

경주캠퍼스는 8월25일 오전 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가을 학위수여식에서 학사337명(학점은행제 5명 포함), 석사97명, 박사19명 등 총 453명을 배출했다.

서울·경주 교원 11명 정년퇴임

모교 교수 11명이 지난 8월31일자로 정년퇴임했다.

서울캠퍼스 교원은 △강문선 불교학부(1996.3.1부임, 정각원장 역임) △심익섭 행정학전공(1990.9.1부임, 기획처장 역임) △엄기현 멀티미디어공학과(1978.3.2부임, 영상대학원장 역임) △신재호 전자전기공학부(1988.3.1부임, 기획부총장 역임) △이혜은 지리교육과(1984.3.1부임, 사범대학장 역임) △김대열 미술학부(1997.3.1부임, 미술학부장 역임) △김방욱 연극학부(2001.9.1부임, 예술대학장 역임)교수다.

경주캠퍼스는 △이임수 국어국문학과

(1983.3.1부임, 교무처장 역임) △허형도 글로벌경제통상학부(1989.3.1부임, 경영관광대학장 역임) △임현술 의학과(1990.3.1부임, 의과대학장 역임) △김정란 의학과(1989.3.1부임, 의과대학장 역임)교수가 정년을 맞았다.

동양서 백만번째 도서 등록 돌파

모교 중앙도서관은 10월8일 동양서 백만번째 등록번호를 돌파했다.

동양서(국내서, 일본서, 중국서 등) 등록번호는 1968년 4월 8일 등록번호 1번을 부여한 이래 50여년 만이다.

영남지역 골프대회 37팀 참가

우승_양정민, 행운상_김승현 동문 차지

제10회 총장배 영남지역동문 골프대회가 경남지부(회장 권철현, 80/86한의) 주관으로 37개팀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0월25일 동부산CC에서 열려 동문간 친목과 모교 사랑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대회 우승은 양정민(95행원, 이지골프샵 대표) 동문이 차지, 총장상을 받았다. 준우승은 김정모(84조경, 한진조경 사장), 메달리스트는 67타의 임동백(10사 회과학대학원, 신명사무용가구 대표)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행운권 주첨에서는 총동창회장상(49인치 삼성TV)에 김승현(85조경, 울산 조경자재 대표) 동문이 당첨돼 전영화 회장으로부터 행운경품을 받았다.

모교 석좌교수 황수로 동부산 CC 회장 1천만원과 영남지역 6개 동창회가 십시일반 모은 성금은 동국발전기금으로 한보광 총장스님에게 전달됐다.

이번 대회에 본부 총동창회에서는 전영화 회장을 비롯 서영준(64법학) 고문과 박대신(69국문) 김오현(76체교) 상



임부회장이 참가, 라운딩했다.

한편 대회에 앞서 10월24일 밤에는 본회 임원단과 부산동창회 박진호 회장, 이영구(64불교) 문선배(12경영)동

문 등이 자리를 함께하고 본부 및 지역 동창회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이 자리에서 서영준 고문은 부산지부 발전기금으로 100만원을 기부했다.

■ 태양금속공업(주) 회장 한 우 삼 동문

기술력 최고의 세계적 자동차부품 메이커로 '우뚝'

총동창회는 지난 6월27일 한우삼 동문 초청으로 경기도 안산시 해봉로에 자리잡은 태양금속을 방문했다. 태양금속은 공장의 규모로나 자동차부품생산설비 시설이 국내 최대로 알려져 있다. 부지면적 51,661.3㎡에 건물 42,294.17㎡의 시설이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태양금속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충북 음성에 140,975.4㎡ 부지에 부품공장을 더 지어 2018년 이전한다. 안산공장이 물량을 생산하는 데 협소하기 때문인데, 그렇더라도 안산공장의 규모는 크다. 대형 화물차와 지게차가 공장 내부로 부지런히 드나들고, 공장 내부는 각 세션의 종사자들이 철을 녹여서 부품을 만들어내느라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 있다. 동문 방문단을 공장 요소요소에 직접 안내한 한우삼 회장은 70대의 연령대지만 50대말 쯤으로 여겨질 정도로 젊고 활력이 넘쳐보였다. 한 회장과 인터뷰는 이날 방문행사 과정에서 바쁜 가운데 틈틈이 이루어졌다.



한국형 명문 장수기업의 표본으로 알려진 태양금속공업(주)(이하 태양금속)의 한우삼 회장. 그는 동국대 농학과 63학번 동문이다. 선친 한우영 前 회장(작고)과 함께 일궈온 태양금속은 우리나라 초일류 자동차 부품 제조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태양금속 제품이 들어가지 않으면 국산 자동차가 굴러가지 못할 정도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로서 독보적인 존재다.

- 공장의 규모에 대해 우선 놀랐습니다. 회사에 대해 소개해주신다면?

“전문용어가 많지만 그대로 설명한다면, 냉간단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엔진/조향/제동장치용 부품 등 자동차의 안전과 직결된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시부품은 물론 전자제품 및 기타산업용 냉간단조품을 생산하고, 2012년부터는 현대자동차 인도공장에 Steering Gear Box Assembly 및 Intermediate Shaft Assembly를 생산, 공급하면서 Steering System 부문의 소재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수직계열화를 완성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를 가공해 단조, 로링, 열처리, 표면처리, 포장까지 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공정을 One Point System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요. 자동차 너트 하나에서부터 엔진까지를 만들어내는 최첨단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1954년 창립 ... 3대째 이어

설명을 덧붙인다면, 태양금속은 기술력 뛰어난 세계적 자동차부품 메이커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발달은 태양금속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태양금속은 한우삼 회장의 선친 고 한우영 명예회장이 1954년 창립했다. 자전거 살의 너트를 개발, 생산하면서 시작된 이 회사는 1960년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로 전환해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첨병 역할을 다했다. 주력제품인 자동차 엔진과 차체 체결부품인 볼트류를 첨단 기술을 도입해 진화시켰다. 진화의 핵심은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고강도화다. 자동차 업계의 추세는 연비축소를 위해 차체의 경량화를 도입하고 있는데 태양금속은 이런 변화를 선도해오며, R&D에 집중 투자해 3차원측정기 만능측정기 자동형상측정기 등 수십 종에 달하는 시험/계측설비를 개발했다. 이와 아울러 자동차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브레이크 컴포넌트, 파워트레인 컴포넌트, 스트링 컴포넌트 일체를 생산했다.

태양금속은 1967년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 등록한 이래 50년간 현대자동차

인도에 생산공장을 설립했으며, 자동차 도시인 미국 디트로이트에 판매 및 기술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태양금속은 철강 소재를 근간으로 볼트를 생산하고 있지만 알루미늄 볼트 개발 완료에 이어 앞으로 경량재료 타이타늄, 마그네슘 및 복합재료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 볼트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우뚝 서려면 사후에서 말해주듯 실력, 신용, 신의와 사시에서 말하는 신뢰와 창조 의 정신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사후 '실력·신용·신의'

자동차가 한국의 주력산업으로 떠오르면서 부속제품 공급이 달라져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태양금속 공장 앞에 차를 대기시켜놓고 부품을 받아갈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때 값

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가족경영은 선친의 경영철학입니다. 종업원은 절대로 먹는 것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철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장을 세운 서울 천호동시절부터 종업원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제품으로 응답이 돼나오죠. 우리가 힘들었던 IMF 관리체제 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상여금을 반납할 정도로 애사심과 구사(求社)정신을 앞세우더군요. 저희는 창사 이래 단 한번의 노사분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IMF 관리체제 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상여금을 반납할 정도로 애사심과 구사(求社)정신을 앞세우더군요. 저희는 창사 이래 단 한번의 노사분규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속에 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태양금속은 3D업종에 속한다. 하지만 종업원은 입사하면 이직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높은 후생복지와 연봉(평균 7,000만원) 때문만이 아닌 가족친화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한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개발도상국에게 경제성장의 교과서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태양금속도 그 일원이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모교 사랑도 누구 못지않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한 회장은 “앞으로도 회사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의 극대화, 사업영역의 확대, 첨단소재와 신공법의 개발, 친환경 제품 위주의 사업에 주력해 나갈 것이며, 해외 투자사업과 기술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선진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회장은 자동차부품 업계에 몸담은 이래 관련 산업 선진화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정부로부터 금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안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했다.

이 계 흥

(65국문, 본회 홍보분과위원장)

산업 선진화 공로 '금탑산업훈장' 수훈 “가족 친화적 분위기... 선친의 경영철학”



와 함께 한 길을 걸어왔다. 그 결과 2010년 동종업계 최초로 현대/기아 품질5스타를 획득했다.

- 경영전략을 말씀하신다면...

“경쟁력이 강화된 자동차부품시장에서 앞서가기 위해 소재연구실을 사장직속으로 운영하며 고객사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것이 기본 경영전략입니다. 자동차산업의 세계화 트렌드에 발맞춰 전 세계적 사업확장을 위해 중국 및

을 더 올려받아도 누가 탓할 것이 못했다. 하지만 태양금속은 적정 이윤 이외 폭리라는 것을 몰랐다. 양심에 따른 적정이윤을 고수하는 것이 한우영-한우삼 부자경영 철학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3세 운영자로 한상훈 사장이 실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그 정신은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다.

- 창업이래 임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을 정도로 '가족경영'이 근간이라는 신문 소개를 보았는데, 회사경영 철학

신경림 시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올라



한국문단의 대표적 시인이자 동국문학의 자존심인 신경림(54/65영문) 동문에게 올 가을 경사가 겹쳤다. ▲하나- 시 '별☆'이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으로 9월1일 선을 보였다. <반짝반짝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인다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고 사람들 사이에 별이 보인다> 광화문글판은 지난 1991년부터 27년째 거리를

를 오가는 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다. 이번 '가을편'은 오는 11월 말까지 광화문 교보생명빌딩과 강남 교보타워 등에 걸린다.

▲둘- 제4회 심훈문학대상을 9월23일 수상했다. 심훈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가 주최하고 계간 아시아가 공동 주관했다. ▲셋- 평전 '시인 신경림'이 소설가 이경림씨에 의해 최근 출간됐다. 신 동문을 직접 취재해 쓴 평전은 시집 '농무(農舞)'로 리얼리즘 문학을 대표해 온 시인이 지금껏 살아온 나날을 구수한 이야기로 풀어냈다.

'2017년 삼성행복대상' 수상



시인 문정희(66/70국문)동문이 11월9일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여성 권익 향상과 가족애를 실천한 시민에게 주는 '2017 삼성행복대상'을 수상한다.

문 동문은 한국의 대표 시인이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가다. 69년 등단 이후 지금까지 이 시대 여성의 삶과 현실을 빼어난 언어로 투시하고 사회적 타자들을 독창적인 시각으로 표현해 독보적인 시 세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한국적 감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어우른 작품들을 발표하며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12권의 해

외 시집을 통해 해외문학상도 다수 수상했다.

문 시인은 지난 6월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 최대 규모의 시 축제 '마르세드라 포에지'에 참석한데 이어 9월에는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열리는 '세계 시인회의'에 다녀왔다. 11월에는 중국 시인 베이타오의 초청으로 홍콩 인터네셔널 포에트리 페스티벌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문정희'라는 이름을 새로운 장미 품종에 달아주는 명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조사이 국제대학도 방문한다.

문 시인은 고려대 미디어문예창작과 교수, 한국시인협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국대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중앙회장 취임



경찰대학장을 지낸 강영규(70/77경행) 동문이 6월8일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제22대 중앙회장에 취임했다. 재향경우회는 150만 전직 경찰관들의 모임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및 자유수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 회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관과 각종 규정을 개정하여 통합과 발전의 시대에 걸맞는 경우회로 도약시키

겠다"고 밝혔다. 또 △조직의 역량강화 및 경우회 위상 제고 △각종 신규사업 확대 및 경우회원의 일자리 창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경우회 활성화 △시도회 및 지역회 운영자금 대폭 확대 등을 통해 경우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졸업후 경찰에 투신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 서울청기동단장, 101경비단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으며, 은퇴후 경찰공제회 이사장, 경우회 중앙회 부회장, 시큐넷(주) 대표이사, 서강전문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다.

OCI미술관 초대 '오원배 개인전'



OCI미술관 초대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OCI미술관 1,2,3전시장 전층에 40여년 화업을 공개한다. 작품은 인간의 실존과 소외, 현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등을 다루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폭 32m의 대작을 비롯하여 800호, 500호 이상 크기의 신작도

포함되어 있다.

오 동문은 대학 시절이던 1970년대에는 가면이나 탈을 쓴 인간의 이미지를 주로 작품에 담았다. 프랑스 유학 시절엔 거친 표현으로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했고 귀국후 모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한 1980년대 후반 이후엔 중성화된 생명체 시리즈로 인간의 소외를 대변했다. 1990년대에 암울한 도심 풍경과 그 안에서 배회하는 유령 시리즈를, 2000년대 들어서는 거침과 부드러움이 대비되는 '이중적 풍경' 시리즈를 선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발전위원장 활약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재성(88/92불교) 동문이 7월28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당 발전위원장으로 발탁됐다. 최 위원장은 지난 5·9 대통령선거 때는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본부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6일만에 백의종군을 선언한 후 70일만에 정치에 컴백한 셈이다.

최 위원장은 최근 지방도시를 순회하며 혁신보고회를 통해 "국민이 당원이고, 당원이 국민인 환경을 만들고 법률과 당헌·당규를 제도화시켜 실

현가능한 축적물이 나올 수 있도록 혁신을 만들고자 한다"면서 "당을 당원주권정당과 지지자 정당으로 융합발전 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역설하였다. 또 당원자치회와 관련해서는 "당원들의 자발적인 조직과 활동이 당의 대의기구를 직접 선출하는 기반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100만 당원, 100년 정당 시대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당시 야당인 열린우리당 간판으로 남양주시 갑선거구에서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에 입문했다. 이어 같은 선거구에서 18대, 19대 국회의원으로 연거푸 당선됐다. 국회의원 시절 당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총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아파트 밧줄 추락사 유족에게 위로금



신화종합건설 회장 문선배(12/16경영) 동문이 6월24일 '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추락사' 피해자의 유가족을 돕고자 위로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문 동문은 "건설업계 종사자로서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진 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가족들과 논의 끝에 부산진구청 6층 초록우산을 찾아 이들 가족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앞서 6월8일 오전 경남 양산시 덕계동의 15층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파트 외벽에 매달려 도색중이던 A씨의 밧줄을 끊어버

리는 사건이 있었다. A씨에게는 다섯 명의 자녀가 있었다.

문 동문은 현재,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후학 양성과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진 동문과 기업인 등 70여명이 인재양성과 경영학부, 경영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2014년 4월 뜻을 모아 설립한 동경장학회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동경장학회는 2014년 11월 경주캠퍼스에 2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한데 이어 2020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중에 있다.

튼튼한 시공으로 미래를 약속하는 기업 (주)신화종합건설 회장으로 있으며 계열사로 (주)한진공영, (주)신화공영, (주)희원기업, 신화하니엘(주)이 있다. 본회 부산지역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다.

형종호 고문 '기어 외길 50년'

농기계 기어 9,000종 50개국 수출



삼공기어공업 회장 형종호(56/60법학) 본회 고문이 회사 창립50주년 기념식을 10월17일 인천송도컨

벤시아에서 가졌다.

삼공기업은 1967년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서 회사 전신인 '원공사'를 설립해 주로 버스과 트럭용 기어를 수리하다 제조원리를 터득해 3년 뒤에는 공작기계를 수입해 기어를 직접 만들었다. 이후 다른 자동차 부품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기어만 생산해 현재는 국내외 상용차는 물론이고 트랙터

를 비롯한 농기계에 들어가는 기어 9000여종을 생산한다. 미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50여 개국에 수출도 한다. 회사 1985년부터 모든 임직원 자녀의 중학교 진학부터 대학 입학금까지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 회사를 경영하던 외아들 남진 씨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남진 유언에 따라 그해 30억 원을 출연해 아들 이름을 딴 '형남진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형 회장은 '최고 품질' '정확한 납기'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기업의 생존 조건이라고 판단해 회사 이름을 '삼공(三共)'이라 지었다.

취임·영전

학교법인 동의학원 제3대 이사장



구영수(56/61법학)동문이 6월12일 학교법인 동의학원의 제3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1986년부터 동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정대학장 및 행정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1966년 설립된 동의학원은 산하에 중·고·대학과 의료원을 두고 있다.

인천재향경우회 12대 회장



이환섭(71/75경행, 에스원경인사업부 고문) 동문이 지난 4월 제12대 인천재향경우회장에 취임했다. 인천 퇴직 경찰 모임인 인천재향

경우회에 등록된 회원은 모두 1천500명. 1978년 경사특채로 경찰에 입문해 2010년 인천중부경찰서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현직 경찰 20여년간 청렴하고 강직했다는 평을 들었다.

조계종 균종특별교구장



선목혜자스님(96불원, 도안사 주지)이 7월12일 균포교 전반을 책임지는 조계종 균종특별교구 주지에 임명됐다. 임기는 4년이다.

혜자스님은 순호스님을 은사로 1967년 사미계를 받았다. 총무원 문화부장과 사서실장, 서울 강북구 도선사 주지, 제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뉴시스 도쿄 특파원 발령

조운영(국문98)동문이 8월1일 뉴시스 도쿄특파원으로 발령됐다.

한국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장



김오현(76/80, (주)아미건 회장)동문이 10월20일부터 22일까지 광주 U-스퀘어 야외무대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장으로 활약했다. 행사는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육성 및 대한민국의 영상문화발전을 위해 광주광역시 주최했다.

가톨릭관동대 대외부총장



신용선(경행78)동문이 9월1일 가톨릭관동대 부총장에 부임했다. 경찰공무원으로 대통령실 경찰관리관, 경찰청 경비국장, 강원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



강재화(79/86전자계산)동문이 올해 초 (사)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에 취임했다.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센터는 1969년 부산항부두관리협회로 출범해 2014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성녹영(86/92물리)동문이 4월26일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에 취임했다.

2000년 행정고시 44기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중기청 기술정책과, 정책총괄과, 지식서비스창업과장, 재도전성장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경찰청 고위직에 동문 다수 발탁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경찰청 차장 박진우, 부산경찰청장 조현배 동문

7월26일 발표된 경찰청 치안정감 인사에서 박경민(08/10대학원 박사)동문이 인천지방경찰청장에서 해양경찰청장으로 보직 이동됐다. 경남지방경찰청장 박진우(대학원 박사과정)동문은 치안장감 승진과 함께 경찰청 차장으로, 경찰청 기획조정관 조현배(07/12대학원 박사)동문은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 치안정감은 13만 경찰가운데 6자리 뿐인 고위직이다.

경찰청 보안국장 이재열, 경찰청 기획조정관 민갑룡 동문

8월9일 있는 경찰청 치안감 인사에서는 이재열(79/86경행)동문이 울산지방경찰청장에서 경찰청 보안국장으로, 민갑룡(대학원 박사과정)동문은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에서 경찰청 기획조정관으로 영전했다.

서울경찰청 교통관리부장 최해영, 전북경찰청 2부장 최관호 동문

경무관 인사에서는 최해영(79/83경행)동문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부장으로, 최관호(84/91경행)동문은 9월27일 전북지방경찰청 2부장에 취임했다.

총경급 승진·전보

6월22일 있었던 총경급 인사에서는 6명의 동문이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했으며, 21명은 전보되었다. (가나다순)

〈승진〉 △김기현(93/99경행)=제주경찰청 형사과장 △김선섭(87/94경행)=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교육) △김택수(87/94경행)=강원경찰청 태백경찰서장 △모상모(85/92경행)=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교육) △임실기(85/90경행)=경기북부경찰청 치안지도관 △장원석(86/93경행)=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교육)

〈전보〉 △곽영진(87/91경행)=경기북부청 남양주경찰서장 △김병기(88/95경행)=서울경찰청 방배경찰서장 △김숙진(00/04행원)=경기북부청 고양경찰서장 △김태형(89/96경행)=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김호승(87/91경행)=경찰청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김희중(85/89경행)=강원경찰청 정보과장 △류성호(91/93행원)=강원경찰청 수사과장 △마경석(89/96경행)=경기북부청 정보과장 △박영수(83/90전자)=경북경찰청 안동경찰서장 △박주현(89/96경행)=전북경찰청 정보과장 △박준성(88/95경행)=전남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 △손호중(91/93행원)=강원경찰청 횡성경찰서장 △오충익(86/94경행)=전남경찰청 진도경찰서장 △이동민(82/89경행)=전북경찰청 부안경찰서장 △이을신(84/92경행)=제주경찰청 보안과장 △이준형(대학원)=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교육) △이호영(85/92경행)=서울경찰청 강북경찰서장 △임병숙(84/88역교)=경기북부청 가평경찰서장 △전진선(79/86경행)=경기남부지방청 여주경찰서장 △황석현(85/92경행)=전남경찰청 담양경찰서장 △장종근(03/04행원)=울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www.ehsp.co.kr



해성약품(주) (주)진선메디칼

첨단물류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 의료소모품 전문 유통업체

대표이사 **안형모**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소길 33-56
 TEL : 043 - 216 - 2541 FAX : 043 - 216 - 2544

의왕상공회의소 회장



김철환(89/91행원)동문이 9월11일 임기 3년의 의왕시 상공회의소 제5대 회장에 취임했다. 회원기업은 670개 회사이다.

1989년 (주)선영화학을 설립한 뒤 200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주)선영화학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이사장



장성호(99/02사대원, 동신해운 대표이사)동문이 7월5일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제6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동신해운과 동신의료재단을 경영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제6대 의장을 지냈다.

수상

나눔국민대상 '대통령상'



강병령(81/87한의)동문이 10월19일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부산시 장애인총연합회 부회장 등 장애인관련단체와 희망을 여는 사람들 이사장, 인봉장학회 회장 등 저소득층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제17회 지훈상 문학부문



이윤학(85/90국문)동문이 지난 5월 나남출판사가 제정한 제17회 지훈상(문학부문)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시집 '질은 백야' (문학과지성사). 199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2003년 김수영문학상을 받았다.

제4회 신석정문학상



공광규(국문83, 시인)동문이 9월23일 '제4회 신석정 문학상'을 수상했다. 작품은 작품집 <담장을 허물다>. 1986년 동서문학으로 등단했다.

제22회 한겨레문학상



강화길(13/15대학원 박사과정)동문이 장편소설 '다른 사람'으로 5월26일 한겨레문학상을 받았다.

2012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고 지난해 11월 소설집 <괜찮은 사람>을 펴냈다. 올해 3월에는 단편 '호수-다른 사람'이 문학동네 젊은작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기타

모교 인재육성장학기금 1억 기탁



정동일(01경영, 전 서울 중구청장)동문이 7월3일 인재육성장학기금 1억원을 모교에 전달했다. 모교는 해당기금의 이름을 정 명예회장의 이름을 딴 '정동일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책 소개

'스스로 길이 되어 가라-自強'

송석구 지음 / 한스컨텐츠

송석구(58/62철학, 전 동국대총장,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본회 고문이 최근 산문집 '스스로 길이 되어 가라-자강(自強)'을 출간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기 삶의 중심이 되어 스스로 길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적고 있다. 1부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해지기, 2부 강한사람으로 거듭나기, 3부 스스로 지혜롭게 깨어 있기, 4부 소중한 인연과 더불어 살아가기로 나누어 각 부마다 소주제별로 '자강'과 관련된 글들을 썼다.

'나의 발심수행장' 외

채인환 스님 지음 / 문현

호암 채인환스님(63/64불교, 동국대 명예교수, 조계종 원로의원)이 자신의 회고록 '나의 발심수행장' (전 2권)과 '증도가' '선리참구' 등 총 4권을 8월25일 펴냈다. 나의 '발심수행장'은 행자시절, 불교사전 편찬, 해외포교, 교수시절, 신문·잡지 원고 등을 모아 정리했다. '증도가'는 중국의 영가 현각선사(665-713,당)가 스스로 깨달은 내용을 계승, 즉 선시의 형태로 옮긴 것을 인환스님이 해설했다. '선리참구'는 조사스님들의 선문답 법문 어록 등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가려 연구한 성과물이다.

'경전으로 본 세계종교' <불교> 편 김용표 편저 / 전통문화연구회

김용표(69/78불교, 동국대 명예교수)동문이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경전으로 본 세계종교' 가운데 <불교>편의 핵심내용을 추출하여 문고화했다. 본서는 종교현상학적 유형론에 입각하여 경전의 내용을 선정하고 분류하여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우취애락(郵趣愛樂)

송일호 엮음 / 도서출판 조은

송일호(77/82경제, 동국대 교수)동문이 세계우표전시회 대금상 수상기념 작품집 '우취애락(郵趣愛樂)'을 펴냈다. 우표는 우리의 소중한 역사 자료이면서 한 나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자는 50년 동안 우표수집을 해왔다. 이번에 출간된 책에는 '노동의 역사적 발전'이라는 테마틱 작

품과 '한국 일본우편국'이라는 우정사작품을 소개했다. 전자는 해외 우표와 서간문, 봉투 및 스탬프 등이고 후자는 1987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과 일본의 우편관련 자료 등이 망라되었다.

'나무아미타불'

김호성 번역 / 모과나무

김호성(78/84인철, 동국대 교수)동문이 일본 불교학자 야나기 무네요시가 쓴 '나무아미타불'을 꼬박 9년에 걸쳐 번역해냈다. 염불의 불교, 삼부경, 사문법장, 아미타불, 제18원, 염불, 타력, 범부, 육자, 서방, 일념 다념, 회향 불회향, 내영 불래영, 왕생, 행과 믿음, 자력과 타력 등 그동안 정토교학에서 문제가 되어왔거나 문제가 될 주요 토론 주제들을 망라했다.

학습서 '전치사는 간치사다'

정준규 지음 / 도서출판 다윈

정준규(81/88영문, 대덕영어연구소장)동문이 '전치사는 간치사다 - 전치사를 전치사로 알면 영어가 어려워진다'라는 학습서를 펴냈다. 전치사인 in, on, at, about, by, of, from, to, for, with의 의미와 상황별로 쓰이는 예문을 제시했다. 2013년에 저술한 영어연구서 '영어탐구'가 그렇듯이 저자는 영어를 공부하는 데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에 대하여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갖고 독창적인 생각들을 드러냈다.

KBS드라마 '김과장' 명대사 모음집

박재범 지음 / 아우름

박재범(92/96영문, 드라마 작가)동문은 지난 3월말 종영된 KBS2 드라마 '김과장'의 명대사를 모아 정리한 책 '김과장 직장백서(아우름)'를 최근 펴내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김과장'은 최종회 시청률 18.4%(닐슨코리아)로 드라마로도 성공을 보였다.

'우리 사우나는 JTBC 안봐요'

박진규 지음 / 나무옆의자

소설가 박진규(96/02문예창작) 동문이 2005년 '수상한 식모들'로 제11회 문학동네소설상을 수상한 뒤, 2014년 '나는 뽀빠로가 두려워'에서 필명인 박생강으로 작품을 발표했다. 그리고 2017년 박생강이란 필명으로 두번째 장편소설을 내놓았다. 제13회 세계문학상 수상작인 '우리 사우나는 JTBC 안봐요'가 그 작품이다.

혼자는 편하고 둘은 편하다

이재목 지음 / 한국경제신문

이재목(95/03정외, 결혼정보회사 듀오 컨설턴트)동문이 최근 <혼자는 편하고 둘은 편하다>는 책을 발간했다. 15년 동안 5백회의 미팅이벤트와 4만 명 미혼 남녀의 만남을 직접 주선해 수많은 부부를 탄생시킨 저자는 이 책에서 혼자가 익숙해져버린 일상 속에서 좋아서 혼자인 건지, 둘이 되는 관계가 두려운 건지 모르는 대중을 위해 사실적인 연애와 결혼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단신 (短信)

이민휘 고문, 본회 수시 격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을 지낸 본회 고문 이민휘(52/56정치, Train Woorks 회장) 동문이 9월 13일 본회 사무처를 방문,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 고문은 미국에서 사업차 한국을 방문 때마다 본회를 찾아 총동창회 발전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혜동회, 사무처 노고 치하



우리 동창회 최원로들의 모임인 '혜동회' 박영민 회장(중앙),이남진 총무(오른쪽), 김영근 동문 등 임원 3명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동창회가 정상화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10월19일 사무처를 방문, 직원들을 치하했다.

혜동회는 46학번 혜화전문 출신 동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파악된 생존 회원은 10여명 안팎으로 나이는 90세 초반들이다.

미주동문회 활동 현황 소개



정천용 동문



오재관 동문

북미주동창회장 정천용(63국문)동문과 텍사스동창회 오재관(67농경) 전 회장이 10월17일 본회 사무처를 찾아와 미주 동문회 활동과 동문들의 근황을 전했다.

두 동문은 이날 동창회 사무실에 우연히 같은 시간대에 방문, 조우했다. 두 동문은 북미주총동창회 총회 때 한 두 번 만나 인사를 나누었을 뿐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으나 이번 동창회 방문을 통해 다시 만나 반갑게 악수했다.

이들은 각기 한국방문 여비를 아껴 동창회 임원회비를 납부했다.

앞서 5월2일 와싱턴동문회장 김세용(72/76전산) 동문이 본회를 방문, 현지 동문활동을 전하고 임원회비 20만원을 납부했다.

남가주동문회 템플스테이

남가주동문회(회장=강병선, 83/88인철)는 8월19~20일 테하차피 태고사(주지 형전스님)에서 1박2일 템플스테이 행사를 가졌다.

일광신도시 3BL 아파트 2017년 10월부터 착공

[주]신화종합건설 대림산업 공동시공



한편의詩처럼 아름다운 집을 짓는

신화종합건설의 고품격 브랜드, Haniel



* 하니엘 Haniel

‘사랑과 미의 천사’ ‘신의영광’ 이라는 뜻으로 신과의 동석이 허락된 일곱 천사 중의 하나인 Haniel 하니엘은 악을 물리치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행운의 상징이며, 하니엘을 곁에 둔 자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탄탄하고 건실한 건설명가, 신화종합건설이 탄생시킨 Haniel은 세심한 배려와 품격있는 서비스로 수준 높은 삶의 문화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특별한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게 하는 고품격 주거브랜드입니다.

튼튼한 시공으로 미래를 약속하는 기업

(주)신화종합건설

회장 문 선 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80, 신화빌딩 10층
TEL : (051) 807-2000
FAX : (051) 817-7089
E-mail : 8047123@hanmail.net
http : www.shcon.co.kr

화장품 OEM · ODM 전문 회사
“신뢰받는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한 품목 한 품목 정성을 다해 귀사가 원하는 상품을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스킨케어 전 라인 과 CC크림 , BB크림 과 같은
색조 제품의 선두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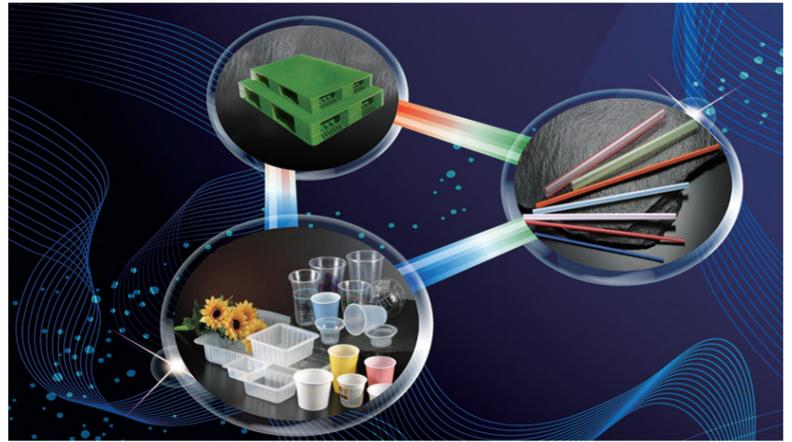


(주)미도화장품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17번길 20
TEL 032) 578-3092-4 / +82.32.578.3092~4
FAX 032) 578-3095 / +82.32.578.3095
E-MAIL marielans@hanmail.net
http://www.midocosmetic.com/

상경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이 상 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0, 상경빌딩 14층 Tel. 02) 557-4757 Fax. 02) 556-3866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인 중 식
(경제학과 53/57)



주식회사 유상
YUSANG CO.,LTD.

포장기술의 새로운 변화

식품포장의 **Global HUB!**



본 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297번지 유상빌딩
TEL. 02) 2631-0066 / FAX. 02) 2672-1348



辯護士 / 辦理士

吳 洙 煥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65, 옥토빌딩 3층 (용인등기소 앞)

Tel. 031) 321-4066 Fax. 031) 321-4062
Mobile. 010-5373-9599 E-mail. yonginlaw@naver.com

五沅物産株式會社



會長 許 秀 昌

(불교경영자최고위과정 08入)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0, 501호 (관훈동, 오원빌딩)

Tel. 02) 739-5534 (直), Fax. 02) 739-5537
02) 739-5535~6 Mobile. 010-5261-7396
E-mail. o-won@o-won.co.kr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회비와 기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회비 · 기금 납부시 성명 · 입학년도 · 학과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회비 국민은행 006001-04-237869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2-718184
 (예금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2017년 4월 11일 ~
11월 2일 접수분

금액 · 성명 가나다 순

고문 분담금



김성재 (58정치)
경주중앙청과 회장



송석구 (58철학)
삼성중앙학재단 이사장



수불스님 (대학원)
안국선원장



원용선 (59영문)
남양이앤씨 회장



월탄스님 (64불교)
법주사 회주



이민휘 (52정치)
Train Works 회장

발전기금



문선배 (13경영)
신화종합건설 회장
발전기금 1,000만원, 부회장 100만원



이창규 (62경영)
DK메디칼솔루션 회장



일면스님 (75승가)
생명나눔본부 이사장



고용규 (70정치)
동우들 대표이사



강진수 (81법학)
일품한우 대표



공기태 (79화학)
세움트레이딩 대표



공석돈 (79회계)
백상개발 대표



구윤관 (74회계)
삼원아트무역 대표이사



김동진 (74법학)
변호사



김병대 (77행정)
코리아에셋증권 전무



김상일 (75건축)
집현이앤씨 대표이사



김석만 (89사대원)
신한 회장



김용구 (70농경)
O.S.E 대표이사



김진문 (64경영)
신성약품 대표이사



김태현 (84불교)
법무법인 창조 실장



박대신 (69국문)
동우 대표이사



박 순 (66불교)
대한민국회화제 대표



박영순 (92사대원)
前 보령제약



법조스님 (70불교)
옥천사 회주



본각스님 (72철학)
금륜사



성영석 (67경영)
한국 포리머 회장



손기범 (91행정)
동부허병원 상임고문



신정철 (61행정)
(사)민추협 부회장



안보순 (88행정)
공덕새마을금고 이사장



오원배 (72미술)
동국대 교수



오혜경 (98국대원)
의료법인오해븐 이사장



유병완 (64상학)
사업



윤병관 (82화학)
이지상사 대표이사



윤재민 (81사학)
종합출판 범우사 대표



이관제 (76통계)
동국대 대외협력처장



이광호 (74행정)
신용보증재단 전무



이상현 (54경제)
상경물산 회장



이재창 (00경영)
태양트레이 대표이사



정광훈 (65상학)
뉴-축복웨딩홀 대표



정진태 (00행정)
진우산전 대표이사



조만영 (65농학)
태영전산품 대표이사



조충미 (81교육)
에이서유학원장



중호스님 (81선학)
동국대 대외협력처장



진각스님 (09사대원)
송광정사 주지



최대식 (79회계)
K&C세무회계사 대표



최상철 (64경영)
파인글로벌 대표이사



최석권 (84법학)
법무법인 창조 이사



황경환 (87교대원)
진양유조선 회장



황춘익 (02불교)
태평양관광호텔 회장

<p>부회장</p> <p>김영순(65화학) 월10 원명스님(67인철) 50 이경석(67도공) 30 정천용(63국문) 50 현각스님(78인철) 50</p> <p>지도위원 30만원</p> <p>권오갑(62농경) 김낙돌(64경제) 김명희(59사학) 김봉주(76행대원) 김완식(64농학) 김행남(61정치) 박도근(61사학) 박부엽(59상학) 방조원(77행대원) 서윤길(64불교) 양규철(64농학) 윤창광(59영문) 이기화(57경제) 이병석(57국문) 이상호(60국문) 이재욱(60정치) 조종진(54정치) 태연자용스님(91불대원) 홍영춘(61불교)</p> <p>상임이사 20만원</p> <p>권정의(98대학원) 김상래(78경영) 김용표(69불교) 김인호(01국대원) 노환숙(67경영) 박상관(79행정) 박태원(78법학) 방재홍(79경대원) 방중혁(93행정) 오재관(67농경)</p>	<p>유국현(79화학) 유원표(75통계) 윤두옥(59생물) 이기영(78경제) 이창수(80회계) 이춘필(99불대원) 이필영(63사학) 이학송(78불교) 이홍(78경제) 진각화봉스님(88한외) 최명희(14행대원) 황부호(97행대원)</p> <p>이사 10만원</p> <p>김건작(63식공) 김만호(85통계) 김석기(85행대원) 김수웅(64경제) 김억겸(64농학) 김영린(64법학) 김완규(63농학) 나채문(99산대원) 류봉규(73농학) 박영호(64경행) 박용하(77정외) 박운규(85토목) 박재규(76식공) 박주근(73경행) 박흥서(68통계) 백경선(80불교) 백용운(86수교) 성녹영(86물리) 송철호(74체교) 안수일(80미술) 안창원(66화학) 오근욱(72회계) 이영옥(84무역) 이원백(73전공) 이천기(64농경) 이춘섭(78체교)</p>	<p>이학균(77사교) 이현호(69공경) 임귀수(84농생) 임수근(66경행) 장승수(88연대원) 조시승(69경제) 하창호(65농학) 하해준(00사대원) 한상태(76행정) 한중명(77식공) 홍훈유(65농학) 황규명(65식공)</p> <p>연회비 3만원</p> <p>강수창(63식학) 강중필(81교육) 강중식(57수학) 강진모(86농생) 고호곤(71정외) 곽중학(57국문) 광덕사 권순일(62국문) 권준안(80회계) 김강민(78전기) 김기성(67식공) 김기수(58법학) 김낙현(82체교) 김동대(58경제) 김동식(84법학) 김동우(75통계) 김명석(85정외) 김민애(06불교) 김상규(98국대원) 김상문(81법학) 김상철(79화공) 김성광(65상학) 김성근(77행정) 김성수(80무역) 김성일(86건축) 김세훈(72전자) 20</p>	<p>김순(87의학) 김승기(00대학원) 김시호(83농경) 김신복(86물리) 김영호(99경대원) 김완주(63통계) 김용원(01사대원) 김용원(01사대원) 김윤수(99경영) 김윤숙(75무역) 김은희(90통계) 김정인(80행대원) 김중덕(66경영) 김중배(82수교) 김중호(61대학원) 김중호(57정치) 김진균(82인철) 6 김진수(52경제) 김현진(07대학원) 김형엽(82경영) 김혜경(81가교) 김홍철(60경제) 김후석(72경행) 내원사 도안사 만기사 맹주옥(83행정) 문경식(92경대원) 문윤희(56국문) 미륵사 박광호(75전기) 박덕규(90경대원) 박병준(83건축) 박재원(57경제) 박종일(92행대원) 박치형(80수학) 박형배(85전자) 반룡사 백담사 백운성(97행대원) 법련사</p>	<p>보문사 보문사 사현스님(02불대원) 삼불사 서문진(97정보) 서인숙(90국교) 석련사 성흥사 손시익(97연대원) 송부용(78농경) 송승훈(01전기) 송윤용(84행대원) 송재훈(98경제) 신용준(60국문) 심경용(67법학) 쌍계사 안달남(83행대원) 안창영(60인철) 안현동(87경대원) 엄종호(56법학) 엄종식(86식공) 영안스님(00행대원) 옥건호(67식공) 월정사 유광진(73전기) 유동식(73식공) 유재운(79경제) 유환식(54경제) 윤수정(64경제) 윤혜원(15교대원) 윤호영(49정치) 은하사 이광복(80회계) 이대원(72농생) 이동원(90경행) 이동형(76공경) 이련(64국문) 이병일(95행대원) 이상무(64법학) 이상윤(71건축) 이성룡(58경제)</p>	<p>이성룡(58경제) 이세준(60정치) 이영재(81법학) 이우진(89인철) 이장환(69무역) 이정모(83경영) 이종춘(90조경) 이좌범(64사학) 이지혁(96컴퓨터) 이재근(85전자) 이충환(71통계) 이학설(56법학) 이호택(64인철) 임애란(57사학) 임우택(82경영) 임은수(72토목) 장운스님(92불대원) 전형식(54경제) 정규수(81건축) 정란이(90농생) 정상훈(96법학) 정석원(63사학) 정수스님(03불대원)</p>	<p>정수용(64경제) 정영자(03사대원) 정운영(81전자) 정일주(96문대원) 정총래(78국교) 정홍락(07대학원) 조성대(75수교) 조성현(84사회) 조용범(85경제) 조창숙(69인철) 조철구(65수학) 조철규(79승가) 조한규(67상학) 주해근(92행대원) 중앙사 진관사 차대영(89경행) 채연식(89전공) 철은스님(86교대원) 최귀현(64농학) 최금남(79회계) 최영숙(96영문) 최예형(53경제) 최재유(08대학원)</p>	<p>최종태(57법학) 최홍규(61연극) 최희규(90생물) 추완호(90일문) 탁병운(76공경) 편유장(88의학) 하미정(85국교) 학도사 함한진(96정보관리) 호국지장사 홍승해(70농학) 홍영준(61경제) 황선규(66통계) 황우열(71인철) 동대부고 단체 김경오(92지교) 김영모(89국교) 김윤경(98불교) 김창겸(74영문) 남상돈(85수교) 박규대(85일문) 박수경(79수교) 박재원(86대학원) 엄승희(86체교)</p>	<p>엄정식(90수교) 우인보(81불교) 유태선(02체교) 윤영조(92체교) 이광훈(98체교) 이병준(92화학) 이재영(91지교) 이재원(89수교) 임상선(97국교) 정의원(74사교) 조은정(92수교) 조현선(00국교) 최정수(90영문) 최정욱(91국문) 허백무(77농생) 황길상(84국문)</p>
---	--	---	--	---	---	---	---	--

발전기금

광주동문회 10만원
김중필(82행정) 월 3만원
= 누계 69만원
동명사 월 2만원
= 누계 88만원

회비 납부는 동국사랑의 출발입니다

회비는 1년에 한번 ... 회계년도 1월1일~12월31일까지

- 고문 1백만원이상
- 부회장 1백만원이상
- 지도위원 30만원
- 상임이사 20만원
- 이사 10만원
- 년회비 3만원

납부방법 (예금주:동국대학교총동창회)

- 송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2-718184 신한은행 100-030-783610
- 국민은행 006001-04-237869 하나은행 150-22-01536-0
- 농협은행 301-0171-1030-01
- 지로납부 : 7500891 (우편물 발송시 동봉함)

Interior Design
Architecture
Construction
Exhibition
Theme park

Global Top 100 interior Design Group

고객을 만족시키는 최고의 공간을 구현

Best Quality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벽한 시공

Perfect Construction



디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글로벌 디자인과 시공간의 조화 구축

Global Sympathy



함께 생각하고 발전하며, 차별화된 디자인과 가치가 고객이 추구하는 공간에 담겨질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정화된 아름다움이 있는 공간. 새로운 감성으로 디자인을 담아 내는 은민에스엔디입니다.

이주은민에스엔디
실내, 전시 및 테마파크 디자인

이주은민씨엔씨
일반종합건설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45길 6 혜성빌딩 T. 02.6930.2220 F. 02-6930-2392 www.eunmin.co.kr
| Seoul, Korea | Beijing, China | Hanoi, Vietnam | Cambodia | Doha, Qatar |

대한민국 손해보험업계 최초!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World 지수

5년 연속 선정 - DB손해보험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대표 초우량 기업 DB손해보험 -
 DB손해보험은 잘했다는 칭찬이 아니라 더욱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고객 여러분께 더 큰 믿음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우존스 World지수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World)

DJSI World지수는 미국의 다우존스 인덱스와 스위스의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 SAMO가 공동으로 전 세계 2,528개(2017년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경제, 사회, 환경 등 기업의 총체적인 경영활동을 평가하여 글로벌 표준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글로벌 기업평가 기준입니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World지수 업계최초 5년 연속 선정

전 세계 평가 대상 2,528개 기업 중 320개 기업이 DJSI World 지수에 편입되었고 보험사는 16개사만이 편입되었으며, 국내에서는 DB손해보험이 유일하게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5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선정 기록 ▶ 2009 · 2010 · 2011_DJSI Korea 선정 ▶ 2012_DJSI Asia-Pacific 선정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_DJSI World 선정